



친환경 국가를 대표하는 핀란드의 수도답게 자연거 도로만 1200km에 달하는 에코투어의 명소 헬싱키(왼쪽)와 입국자에게 환경보호를 지키는 서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ESG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명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관광산업을 주도할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스카이스캐너

“플라스틱·비닐봉지 NO”…친환경 관광지 뜬다

백신 접종으로 해외여행 기대감 ↑
환경보호 서약해야 하는 팔라우 등
지속가능 ESG 관광지 관심 높아
전망이 좋은 객실·고급 레스토랑 등
‘분노여행’ 선호 국내 소비자 늘어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각광받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와 ‘분노 여행’이 관광산업의 미래에서 주목할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 글로벌 관광산업은 관광객 수나 매출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그에 반해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과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졌다. 요즘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관광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관광산업에서는 이에 맞춰 과거의 반성과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ESG를 실천하는 여행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다국적 OTA(온라인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인기 여행지를 보면 자연과 야생동물을 지키고,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주려 노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테마가 많다. 실제로 스카이스캐너가 해외여행 재개 시 가볼만한 곳으로 추천한 팔라우, 르완다, 코스타리카, 헬싱키, 아소로스 제도 등의 경우 ESG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는 입국 전 환경보호 규칙을 준수한다는 팔라우서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호초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 없으며,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의 사용도 안 된다. 동아프리카의 르완다는 200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세계 생물 다양성의 6.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이고, 핀란드의 헬싱키는 자연거 도로가 1200km에 달하는 친환경 투어의 명소이다. 아소로스 제도 역시 오버투어리즘 방지를 위해 칼데라 뱀하 온천 같은 관광명소의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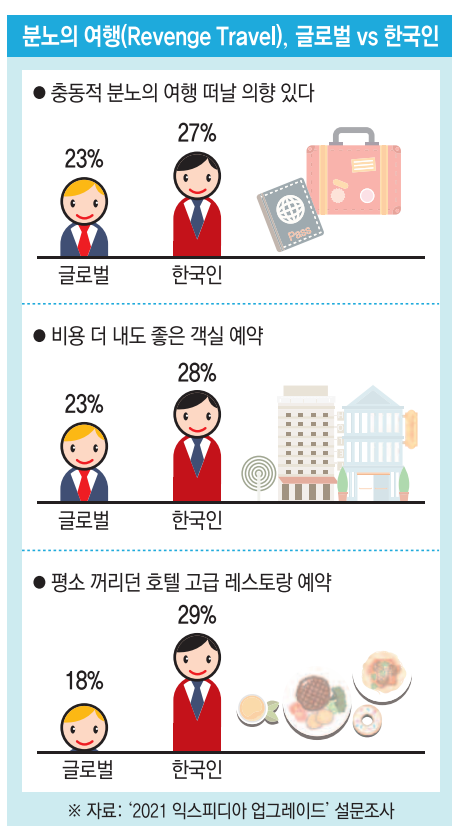
●분노여행 선호, 한국 > 글로벌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억눌렸던 여행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충동적 여행 트렌드, ‘분노의 여행’(Revenge travel)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가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익스피디아 업그레이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7%, 한국의 경우 84%가 올해 충동적으로 행동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글로벌 평균보다 한국 소비자의 ‘분노의 여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동적인 ‘분노의 여행’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경우 글로벌 평균은 23%인데 한국인 응답자는 27%를 기록했다. 좋은 객실에 투숙하거나, 과거에 안 갔던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글로벌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심지어 국내 응답자중 23%는 ‘다시 휴가를 떠날 수만 있다면 한 달간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답했고, 이밖에 흡연(22%)이나 초콜릿 및 군것질(21%)을 참는 등의 금욕생활도 감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 답했다. 해외여행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 서울시 요구 사실상 수용 관측…다음주 합의안 서명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 매각에 잠정 합의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다음주 중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한다. 지난해 11월 26일 예정했던 합의식이 연기된 지 3개월여 만에 재합의에 이르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송현동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영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그 영향으로 지난해 6월 예비입찰에서 아무도 응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통해 서울시의 공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민간 매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가 한국토지공사(LH)와의 부지 교환을 통한 3차 매입을 제안해 조정문 체결까지 이르렀지만, 계약시점을 놓고 서울시가 갑자기 특정 시점을 명기하지 말자고 요구해 합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대한항공이 부지 매각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진척이 없이 정체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합의한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는 부지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이 서울시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하늘 위 징검다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브릿지 투어’ 시즌 오픈

동절기 휴장 마치고 5일부터 새 시즌 시작
타워브릿지 바닥없는 구간 신설해 더 스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의 ‘스카이브릿지 투어’가 동절기 운휴를 마치고 5일 2021년 시즌을 시작한다.

‘스카이브릿지 투어’는 롯데월드타워의 최상단 구조물 사이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는 고공 어트랙션이다. 지상 541m 야외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브릿지를 걷는 스틸이 매력이다. 11m 길이의 철제다리 위에서 하늘 위 스틸을 만끽할 각종 미션과 함께 아찔한 인종샷도 남길 수 있다. 특히 일몰 때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눈 가득 들어오는 서울 전역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

어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다. 투어 후 기념사진 인화 와 투어인증서 역시 색다른 추억이다.

올해는 ‘하늘 위 산책’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틸을 더 강화했다. 철제다리 시작과 끝 지점에 바닥이 비어 있는 징검다리 구간을 추가했다. 투어 참가자들은 착용한 하네스에 연결된 세이프롤러와 손잡이에 의지해 아래가 훤히 보이는 이 구간을 건너가야 한다.

투어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대 12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인솔직원 동행 아래 1시간 동안 진행된다. 2021년 시즌 오픈을 기념해 투어 관람객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샤우트! 스카이브릿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카이브릿지 횡단 전 참가자들의 합성 소리를 측정해 동시찬 대 최고 기록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동절기 운휴를 마치고 징검다리 구간 등 새로운 스틸요소를 가미해 운영을 시작한 롯데월드타워의 스카이브릿지 투어. 서울과 한강의 멋진 풍경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인다. 사진제공 |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서울스카이는 관람객이 안심하고 방문하도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화장실, 도어 손잡이 등을 하루 3회 소독하고 매주 사업장 전체를 아난소독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제주드림타워, 홈쇼핑 패키지 앙코르 방송



북합리조트 제주 드림타워(사진)는 6일 오후 7시30분부터 CJ오쇼핑을 통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객실 상품 판매를 앙코르 방송한다. 2월 14일 CJ오쇼핑에서 진행했던 홈쇼핑 판매에서 1만실 완판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모았던 제주 드림타워 패키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앙코르 방송은 첫 런칭 방송과 동일한 조건의 패키지를 소개한다. 숙박 기간은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다. 국내 첫 도심형 북합리조트인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노형동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개장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5일(금) 음력: 1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개마성과 대화하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손재주와 망신수를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관계가 지면 이롭다. 이성문제, 달신도 조심하라.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 뱀띠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날이다.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얹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신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원숭이띠가 귀인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기발한 묘책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성 관계를 조심하라.		